

# ESG 동향 뉴스 클리핑

이슈 검색기간 : 2023.03.31(금) ~ 2023.04.06(목)

제공일시 2023 04 14 Fri

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

문의 02 398 7675

# ESG 동향 뉴스 클리핑

이슈 검색기간 : 2023.03.31(금) ~ 2023.04.06(목)

제공일시 2023 04 14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

## 뉴스 클리핑 주간자료

### 1. EU,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2배 늘린다...42.5%로 상향 합의

- EU 집행위원회와 이사회, 유럽의회는 3자 협상 끝에 오는 2030년까지 27개 회원국 전역의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치를 기존 32%에서 42.5%로 상향하는 데 합의했음
- 당초 집행위와 유럽의회는 의무 확대 비중을 45%로, EU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는 40%를 주장했으나 42.5%로 절충점을 찾았으며, 타협안을 통해 각 회원국이 자발적으로 최대 45%까지 비중을 늘리도록 권고했음
- 이날 3자 협상에서는 전체 목표치와 별개로, 그간 재생에너지로의 '통합'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운송·산업·건물 냉난방·바이오에너지 등 세부 분야에 대한 재생에너지 확대 지침에 대한 합의도 이뤄졌음
- 이 밖에도 이번 합의에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, 관련 신규 산업에 대한 신속한 허가 절차 도입 대책 등도 포함됐으며, 이날 타결된 합의안은 향후 유럽의회, EU 이사회에서 각각 표결을 거쳐 최종 확정됨

[\(조선비즈, 2023.03.31\) 유병훈 기자](#)

[\(연합뉴스, 2023.03.31\) 정빛나 기자](#)

### 2. EU, 초강력 온실가스 F가스 사용 줄이는 법안 합의

- EU는 냉장고와 에어컨에서 초강력 온실가스 사용을 줄이는 법안에 관한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나, 각 국가와 의원들은 이를 얼마나 빨리 폐기할 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함
- EU 각국은 F가스(불소가스), 즉 히트펌프와 냉장고 냉매, 에어로졸 등에 사용되는 인공가스 사용을 줄이기 위한 협상에는 합의했음
- 이 협상은 2024-2028년까지 이러한 가스의 판매가 2011-2013년 연간 평균의 60%까지 감축하는 것으로, 2036년부터는 15%까지 줄여야 함
- 하지만 EU의회는 시기를 앞당기기를 원하며, 2050년까지 F가스 판매 전면중단 협상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음

[\(Reuters, 2023.04.06\) Kate Abnett 기자](#)

### 3. 일본, 149조원 투입해 2040년 수소 공급량 6배로 늘린다

- 일본 정부가 민간기업과 함께 15조 엔(약 149조원)을 투입, 2040년 수소 공급량을 현재의 약 6배인 연간 1천200만t 정도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함
- 일본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는 수소 공급량을 대폭 확대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'수소 기본 전략'을 내달 말에 확정할 예정임
- 일본 정부는 2030년 무렵 수소를 본격적으로 상용화하기 위해, 대규모 공급망과 생산 거점을 구축할 방침임
- 아울러, 같은 해에 그린수소를 제조할 때 사용하는 전기분해 장치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10%로 올린다는 계획도 세웠으며, 국내 기업 지원을 통해 구부러지는 태양전지 양산 체제를 2030년까지 갖춰 공공시설과 역, 학교 등에 보급할 방침임

[\(연합뉴스, 2023.04.03\) 박상현 기자](#)

### 1. 자발적 탄소시장 핵심원칙 발표 고품질 탄소크레딧 판별

- 30일 자발적 탄소시장을 위한 무결성 위원회(ICVCM)에서 핵심탄소원칙(CCP) 10가지가 발표됐음 [\(매거진한경, 2023.03.31\) 조수빈 기자](#)
- 10가지 원칙은 ▲효과적인 지배구조 ▲추가성 ▲완화 활동에 대한 효과적이고 투명한 정보 제공 ▲온실가스 감축 또는 제거 영구성 ▲이중계산 방지 ▲강력하고 독립적인 제3자 검증 등으로 구성돼 있음
- 탄소배출권 프로그램의 초기 평가는 올해 중순 시작될 예정이며 연말이면 CCP의 배출권 첫 승인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임
- 미국의 탄소배출권 인증 및 발행기구인 베라(Verra)의 탄소배출권까지 최근 그린워싱 논란에 휩싸이며 자발적 탄소시장에 대한 신뢰도에 대해 탄소배출권 중개자 수수료 불투명성 등은 우려가 나오고 있음

### 2. 대통령 직속 '기후테크' 지원 별도대 만든다...탄녹위, 전문위 구성

-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(탄녹위)가 기후테크 산업을 지원·육성하기 위한 별도의 위원회 '기후테크 전문위원회'(가칭)를 구성함 [\(국민일보, 2023.04.06\) 허경구 기자](#)
- 기후테크 전문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의 선정 절차를 거친 뒤 본격적인 운영에 나설 예정임
- 기후테크 전문위원회는 탄녹위 산하 4곳의 분과위원회 중 공정전환·기후적응 분과위원회 아래 하위 기구로 편제될 것으로 예상됨
- 위원회는 기후테크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전략을 모색하게 됨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개선이 필요한 제도는 손질하고,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등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임

### 3. 'IRA 충족' K배터리, 美보조금 받지만...2년 뒤엔 中광물 끊어야

- 미국 정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(IRA)과 관련,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세부 지침 규정안을 발표, 4월 18일부터 시행. 배터리 부품 기준에 양극판·음극판은 포함하고 구성 재료인 양극 활물질은 포함하지 않기로 함 [\(연합뉴스, 2023.04.01\) 강병철 기자](#)  
[\(국제신문, 2023.04.01\) 이석주 기자](#)
- 또 핵심 광물의 경우, 미국과 자유무역협정(FTA)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한 재료를 미국과 FTA를 맺은 한국에서 가공해도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기로 함
- 다만, 전기차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'북미 최종 조립' 요건을 충족해야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생산되는 현대차·기아의 전기차는 리스 등 상업용으로 판매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 대상이 되지 않음
- 재무부는 다음 달 18일 새 규정 시행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동차 리스트와 세액 공제 규모 등을 발표할 예정이며, 2025년부터 중국산 광물을 쓰면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'공급망 탈중국'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

## 1. 뮌헨리, ‘넷제로보험동맹’ 탈퇴

- 유럽 최대 보험회사 중 하나이자 세계 최대 재보험사인 뮌헨리가 반독점 위험을 이유로 ‘넷제로보험 연맹(NZIA) 가입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
- NZIA는 2021년 뮌헨리를 창립 멤버로 설립되었으며, 보험회사들의 넷제로 전환을 이끄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, 이번 발표는 지난해 12월 뱅가드가 넷제로자산운용사동맹에서 탈퇴한 데 이어 두 번째임
- NZIA는 또한 넷제로를 위한 클래스고 금융동맹(GFANZ)에 속해 있는데, 여기에는 넷제로 자산운용사 동맹(NZAM), 넷제로 자산소유자동맹(NZOA), 넷제로 은행동맹(NBA) 등이 포함돼있음
- 뮌헨리는 동맹 탈퇴에도 불구하고 2025년 말까지 투자 포트폴리오와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29%, 2050년까지 넷제로 감축, 기후 관련 석유 및 가스 산업의 배출량을 줄이는 등 기후 목표를 재차 강조했다며, 당분간 관련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임

(ESG Today, 2023.03.31) Mark Segal 기자

## 2. 로레알, 캐나다서 제품 영향 라벨링 시스템 도입

- 뷰티업체 로레알이 캐나다에서 제품 영향 라벨링 시스템을 도입해, 제품의 사회적, 환경적 영향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한다고 발표하고
- 로레알은 1500명의 캐나다인 대상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했는데, 80%가 지속가능한 선택을 원하며, 소비자 3분의2가 제품의 환경영향 정보 제공을 기대한다고 밝혔음
- 로레알의 라벨링 시스템은 프랑스에서 2020년에 처음 시작했으며, 온실가스 배출, 물부족, 해양산성화, 생물다양성 등 14가지 요인을 성분 소싱에서 포장 폐기까지 제품 라이프사이클 전체에 걸쳐 조사, A부터 E까지 점수를 할당함
- 이번 라벨링 시스템은 2022년 12월 미국에도 도입됐으며, 환경뿐 아니라 노동기준에 대한 유엔기본원칙 준수, 사회적 포용정책을 지키는 협력업체 수 등 사회적 영향 정보도 제공함

(ESG Today, 2023.04.03) Mark Segal 기자

## 3. TNFD, ‘자연 관련 위험 관리’ 공시 프레임워크 최종판 공개

- TNFD는 최근 ESG경영에 나서는 기업들의 자연 관련 리스크 평가와 해결을 목적으로 설계한 정보공개 프레임워크를 공개했음
- 이번이 4차이자 최종본 초안이며, TNFD가 올해 9월 최종 권고안을 발표하기에 앞서 공개한 이번 프레임워크는 3차 프레임워크를 다소 수정한 것이라, 이전 버전과 비교해 큰 틀에서 달라진 것은 없지만 몇가지 개선된 사항이 있음
-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제안한 권고 공시 건수를 15건에서 14건으로 줄인 것으로, 이번 최종 프레임워크에는 이전 버전에서 제안됐던 ‘자연과 기후 목표’에 관한 ‘평가지표 및 목표설정 D’가 빠졌음
- 이 외에도 ▶이해관계자 당사자들의 참여 지침 ▶4가지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에 해당하는 지침 ▶4종의 생물군계(biome)에 대한 지침에서 이전 버전과 비교해서 변화와 개선이 이루어졌음

(임팩트온, 2023.04.05) 송선우 기자

## 1. "쓰레기가 돈 된다"...오픈도 전에 주문 쏟아진 SK 도시유전

- SK지오센트릭이 세계 최초로 조성할 예정인 폐플라스틱 재활용 종합 단지 '울산 ARC'에서 만들 열분해유에 글로벌 기업들이 선(先) 계약 주문을 앞다퉀 넣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음
- 관련 업계에 따르면, SK지오센트릭은 글로벌 식음료 업체 A사와 '울산 ARC'에서 만들 예정인 열분해유에 대한 약 1만~2만톤 수준의 선 판매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음
- 이외에도 글로벌 업체 B사, C사 두 곳이 각 1만5000톤 규모의 주문을 이미 넣은 것으로 알려졌으며, SK지오센트릭은 공장 개장 전까지 재활용 물량의 70%를 선 판매하고, 남은 물량 30%는 시장 상황에 맞게 대응한다는 전략을 짜고 있음
- 글로벌 기업들이 SK지오센트릭의 열분해유에 이른 주문을 넣고 있는 것은 2025년을 전후로 유럽, 미국을 중심으로 '재활용 플라스틱 필수' 규제가 현실화될 게 분명하기 때문이며, 이런 시대가 열리면 열분해유는 '도시 유전'이라는 말 그대로 고부가가치 자원이 될 것으로 보임

(머니투데이, 2023.04.03) 최경민 기자

## 2. 한화솔루션 '바이오PVC' 시장 진출...이달부터 상업생산 개시

- 한화솔루션이 폐플라스틱 재활용에 이어 바이오 플라스틱 제조 시장에도 진출함
- 한화솔루션은 국내 폴리염화비닐(PVC) 가공업체 7곳과 '탄소저감을 위한 바이오 PVC 사업 협력 업무협약'을 체결하여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 때 식물에서 유래한 친환경 원료 기반의 PVC 사용을 늘리겠다는 목표를 공개함
- 한화솔루션은 지난해 바이오 PVC 기반의 제품 생산과 가공을 위한 유럽연합(EU) 기준의 지속가능성 인증인 'ISCC(International Sustainability & Carbon Certification) plus'를 취득, 각 가공업체의 인증을 지원하는 등 본격적인 시장 개척을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음
- 한화솔루션과 각 가공업체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 최초로 바이오 PVC를 적용한 바닥재·벽지·파이프·타포린·랩 등의 제품 생산에 나서고, 이달부터 울산과 여수 공장에서 바이오 PVC를 생산해 각 업체에 공급할 계획임

(뉴스트리, 2023.04.05) 이재은 기자

## 3. HD현대오일뱅크, 수소밸류체인 구축 '박차'...폐플라스틱 재활용도 추진

- HD현대오일뱅크가 블루수소 생산부터 이동형 수소 충전소까지 '수소 가치사슬(밸류체인) 구축'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
- HD현대오일뱅크는 현대자동차, 현대글로벌, 현대로템과 함께 광진구 중곡LPG 충전소 부지를 활용, 국내 최초로 이동형 수소 충전소 서비스를 제공함
- 현대차의 25t 대형트럭인 엑시언트에 수소압축기, 저장 용기, 냉각기, 충전기 등 핵심 설비가 모두 탑재돼 하나의 완벽한 수소 충전소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
- 이외에도 HD현대오일뱅크는 대산 공장에서 생산한 블루수소를 투입하여 발전용 전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 있는 친환경 발전소 건설도 계획하고 있음

(뉴시스, 2023.03.31) 유희석 기자

(서울신문, 2023.03.31) 김태근 기자

# Weekend ESG Insight

이슈 검색기간 : 2023.03.31(금) ~ 2023.04.06(목)

제공일시 2023 04 14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

## ppa 계약을 통해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는 글로벌 기업들

- 덴마크 풍력발전 기업 오스테드(Ørsted)는 구글과 15년간 150MW의 재생에너지를 구매하는 '전력 구매계약(Power purchase agreement, PPA)'을 맺었다고 발표했다.
- 이번 계약은 미국에서 구글과 오스테드간 이뤄진 첫 번째 계약이며, 지난 2021년 독일 보르크(Borkum) 지역 리프그룬트(Riffgrund)에서 해상 풍력 전력 50MW를 구매한 데 이어 두 번째로 성사된 계약임. 이번 계약의 전력은 텍사스에 기반을 둔 헬레나 풍력 발전 지역(Helena Wind Farm)에서 생산될 예정임.
- 텍사스 주 비 카운티(Bee County)에 있는 268MW 풍력 발전 단지는 2022년에 시운전되어 약 9만 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전력을 텍사스 전기 위원회(Electric Reliability Council of Texas, ERCOT)에 제공하는 역할을 함.
- 이 계약은 2030년까지 모든 데이터 센터, 클라우드 지역 및 사무실을 연중무휴 무탄소 에너지(CFE)로 운영하겠다는 구글의 목표에 따른 것임.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(Alphabet)은 2020년에 '24/7 CFE 서약(Carbon Free Energy Compact)'을 발표한 바 있음.
- 이는 2030년까지 전 세계 데이터 센터와 사무실을 비롯한 전체 사업을 무탄소 에너지로 운영하는 것으로 회사가 운영되는 모든 지역에서 매일 매시간 전기 수요와 CFE 공급을 일치시키는 것을 의미함. 지난달 구글은 PPA에 더 빠르고 쉬운 제안 요청(RFP) 프로세스를 이용해 거래 협상 및 실행 시간을 약 80% 단축하기 위해 재생 가능 거래 인프라 제공 업체인 레벨텐 에너지(LevelTen Energy)와 협력한다고 발표한 바 있음.
- 구글의 에너지 책임자인 사나 오우지(Sana Ouji)는 "24/7 무탄소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려면 시간당 생산을 최적화하기 위해 다양한 자원을 혼합해야 한다."고 밝혔다. 그는 "구글은 오스테드와의 파트너십을 지속하고 이 풍력 프로젝트를 ERCOT의 기존 태양열 포트폴리오에 추가해 달라스 클라우드 지역 외부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"라고 말했다.
- 한편, 아마존 웹서비스(Amazon Web Services, AWS)는 또한 늘어나는 전력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호주 데이터 센터에 5년간 132억 호주달러(약 12조원)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.
- AWS가 호주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것은 호주의 대규모 재생에너지 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임. 아마존은 그동안 구글,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경쟁기업보다 앞서 나가기 위해 뉴사우스웨일스 및 빅토리아주에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왔음.
- 이에 따라 AWS 호주는 이 계획을 통해 건설, 시설 유지 관리, 엔지니어링 및 통신 분야 등에서 1만 1000개의 일자리를 생겨날 것으로 전망했음.
- 또 독일의 메르세데스 벤츠는 스페인의 이베르드롤라(Iberdrola)와 전력 구매 계약(이하 PPA)을 체결했음. 이 계약으로 벤츠는 발트해 풍력 단지에서 140메가와트(MW)의 풍력 에너지를 공급받음

[\(임팩트유, 2023.04.06\) 유미지 기자](#)

[\(임팩트유, 2023.04.03\) 홍명표 기자](#)

- 이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가 공장 에너지 수요의 70%를 차지하도록 하는 벤츠의 목표에 따른 계약임. 벤츠의 탈탄소화에서 큰 몫을 공장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45%를 차지하는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이 맡고 있음. 이에 더해 벤츠는 2039년까지 전 세계 모든 생산 공장에서 100% 재생 에너지로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.
- 이베르드롤라는 성명서에서 이번 계약은 자동차 회사와 맺은 가장 큰 계약 중 하나라고 말했지만 금액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음. 또 이베르드롤라는 "발트해 윈드앵커(Baltic Sea Windanker) 프로젝트의 용량이 315메가와트로 2027년 완전히 가동될 것"이라고 밝혔음.
- 이베르드롤라는 이미 발트해에서도 350메가와트 규모의 풍력 발전 단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같은 지역에 476메가와트 급의 단지를 건설하고 있음.